

권민지(11)

1. 자기소개와 부서명 :

HMM 4년차 근무하고 있는 권민지 대리입니다. 현재 컨테이너EQ팀에 근무하며 컨테이너 기기 관리/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외대통번역대학원에서 러시아어통번역 전공으로 졸업하였으나, 여타 동기 및 선배들과는 다르게 전공을 직접적으로 살리지는 않았고 곧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일반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몸 담으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업무 내용 :

현재 소속되어 있는 팀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는 특수화물(컨테이너 사업 중 OOG 화물과 같은 특수 제작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 비즈니스) 영업 관리 직무를 1년동안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EQ팀에서 근무하며 컨테이너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컨테이너 기기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사인 만큼 지역(국가) 별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를 위해 기본적으로 외국어 의사 소통 실력이 중시됩니다.

3. 후배님들께 조언 가능한 내용 :

1) 통대 입시/재학/졸업 후 (다양한) 진로

저는 10대 때부터 오로지 통역사만을 꿈꾸며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만큼 통역사의 꿈, 그리고 한국 최고의 통번역대학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입학에 대한 열망이 컸으며, 입학이 어려운 학교인 만큼 간절히 공부해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입학한 학교에서 공부하며 저는 학업 이상으로도 더 많은 값진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역사 외의 더 많은 진로와 길이 있다는 걸 깨닫고 다른 길을 모색한 결과, 저만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대 입학을 꿈꾸는 후배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통대 졸업 후에 제가 걷는 길이 조금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통대에서 공부하는 2년동안 쌓아온 경험과 만나왔던 대학원 선/후배들과의 소통을 통해 가능했던 직간접 경험만 하더라도 후배분들께 들려줄 이야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물류/해운 기업 진로 상담 :

물류/해운업에 4년째 몸을 담고 있으면서 흔히 말하는 글로벌 역량 외에도 해당 업

에 필요한 여러 소양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HMM은 외국어를 상시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이며, 물류업이야 말로 다양한 업계와 시너지를 내는 분야인 만큼 관련 업종에 관심 있으신 후배분들께 필요한 어떤 조언이든 드릴 수 있습니다.